



공동체 소식



## 경 성모승천 대축일 축

오늘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모승천 축일은 성모님의 죽일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죽일이요, 우리 각 개인의 죽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문호진(안토니오), 문예나(요안나) 가정
- **마이클 모랜, 이영민(엘리사벳)**  
대니엘 모랜, 브라이언 모랜 가정

오늘은 "연중 제19주일" 이면서 "성모승천 대축일" 입니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면서,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날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미사 후에는 영세자들을 위한 축하파티와 간단한 점심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성사 안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합니다. 성인 3명이 세례성사를 받게 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예비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식 : 8월 12일(주일) 중심미사 때

오마하 한인성당과 친교의 날

오마하 한인성당과의 친교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오마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하 공동체가 정성스럽게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시오.

- 친교의 날 : 9월 23일(주일)
- 신청 : 문석찬 요셉(행사분과장) 및 행사분과원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59	218	165, 166	47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홍순익(마르티노)	문석찬(요 세)
	김준영(요 세)	문호진(안토니오)
다음주일	이우영(가브리엘)	정수한(베 드 로)
	이원준(요 한)	정예찬(미 카 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안동현(프란치스코)
	박혜정(가타리나)	지은경(리 브 가)
다음주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최은미(아 네 스)	김명은(안 젤 라)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손정화 이사벨, 윤유나 글라라, 유미영 마리아나
다음주일	신혜경 마리아, 박혜정 가타리나, 유경애 아네스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8월 5일>
- 미사참례 : 83명
- 주일헌금 : \$289
- 교 무 금 : \$131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신 아드님의 생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사셨던 성모님께서 승천이라는 영광스런 선물을 받으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감으로써 먼 훗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양식을 바꿀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성화해설

구산  
 수원교구,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구산 마을은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고향이자 박해시대에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교우촌이다. 성인은 동생과 함께 영세한 후 친척과 이웃들을 입교시켜 고향 마을을 교우촌으로 만들었다.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던 그는 1840년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서울 포청으로 압송되었다. 형조로 이송되어 배교를 강요하는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천주교인이다.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것이다.”라며 결코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주호식 파트리지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묵시 11,19ㄱ; 12,1-6ㄱㄴ.10ㄱㄴㄷ

화 답 송 :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앞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 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
-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함께 그 이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
-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 리 없으리라.  
 보라 가없는 이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
-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 돌레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도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복되다 그 임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여. ◎

제 2 독서 : 1코린 15,20-27ㄱ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 음 : 루카 1,39-56

## 말씀의 이삭

# “멀리 하기엔 너무나 가까운 당신”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에 대한 신앙을 간직해 왔고,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이라는 칙서를 통해 ‘원죄 없으신 성모로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친 뒤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에 부르심을 받으신 것은 하느님의 계시에 의한 교리인 것을 명백하게 함과 동시에 이를 널리 선포한다.’고 믿을 교리로 선포함으로써 정식으로 신앙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모님의 승천을 이해하려면 우선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의 생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모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모 승천 신심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초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성모 승천 신심은 성모님의 전생애에 걸쳐 드러나는 성덕과 품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 사도들의 전승, 그리고 교회의 오래된 전승에 근거를 두고 있다. 5세기 전후부터 동방교회에서는 8월 15일을 성모영면(永眠) 축일로 지냈습니다. 성모님께서 주님 안에 ‘**잠드신**’ 일을 축제로 지낸 것입니다. 이렇게 축일로 지정될 정도로 성모승천에 대한 신심은 당시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세기 말엽에는 서방 교회 전역에서도 그 축일을 그대로 따와 지냈는데 8세기 중엽 성 요한 다마스누스가 성모 영면 축일에 행한 세편의 설교를 통해 성모 승천과 천국에서 하시는 은총의 중재 역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660-740)는 성모승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관경이었고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느님께서 간 것이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모친으로서 하느님의 특별 은총으로 항상 거룩하게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원죄는 물론이고 모든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드님처럼 죄로 결과인 죽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낳은 분이 육체를 갖고 하늘에 오르시어 부활한 영광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흠숭하고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당

신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성모님은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승천해 천상 모후의 지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맨 먼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승천이 지닌 의미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확실하게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성모님과 같이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 나도 성모님처럼 그렇게 산다면 승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모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성모님과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삶을 다시금 헤아려보면, 그분은 나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 아니라 ‘**멀리 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 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운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희망을 나의 희망 되게 해주시며, 나의 희망이 실현 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나처럼 부족함을 지닌 인간이셨으나, 그분의 삶은 여러 어려움(마태 2, 13; 루카 2, 7. 35. 48; 요한 19, 25 참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주님을 향해 거듭 나아가셨습니다. 성모님의 신앙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갖가지 장애와 혼란을 극복하고 완성(승천)으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제대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걸어가기 바랍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 함께 나누어요

나는 마땅히 이걸 누리야겠다,  
나는 마땅히 이걸 해야만 한다,  
권리와 의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생활 속에서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할 때는 권리를 먼저 주장하게 되는데  
그런 주장에는 의무가 따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치는 주장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관계란 서로간의 의무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 권리와 의무

한편, 권리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편에선  
권리의 타당함을 따지기 전에  
의무부터 요구하다 보면 그 관계 또한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자기 편의에 의해서  
무얼 앞세우는가에 따라 타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권리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교부들의 신앙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저서

클레멘스는 박해가 202년경 알렉산드리아에도 심하게 일어나게 되자, 카파도키아로 피신하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과 안티오키아로 건너가 교회에 봉사하며 왕성한 저술활동을 계속하다가 212년경에 선종하였다. 클레멘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주교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클레멘스가 카파도키아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클레멘스를 통해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그는 복된 사제로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존경받을만한 덕망있는 분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총과 섭리에 따라 이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확장시켰습니다”(에우세비우스, 교회사 6,11,6).

동방교회에서는 그를 순교성인으로 공경한다. 그는 성경에도 매우 정통했을 뿐 아니라, 이교 철학, 고고학, 신화학, 문학 등에도 두루 박학했다. 이 사실은 그의 저서들 안에서 구약성경 1500구절과 신약성경 2000구절 인용되고, 360번에 걸쳐 이교 문헌들을 그의 작품안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클레멘스는 이교철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신앙과 이교철학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학문은 신학에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교는 모든 이교학문의 영광이며 화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교철학의 이러한 조화는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 이성 안에 역사하신다는 [로고스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클레멘스는 이교학문을 거쳐 그리스도교의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되는 회개의 세 단계에 상응하는 세 종류의 작품을 남겼다. 바로 [그리스인들을 향한 권고], [교육자], [양탄자]이다.

1) [그리스인들을 향한 권고]: 이방 종교와 문화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었던 클레멘스는 자신의 체험으로 이방 종교의 신비들과 그 의식들이 어리석고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리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참된 스승으로 알리면서 유아기에 불과한 이교사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교의 성숙한 진리의 품안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다.

2) [교육자]: 위에서 말한 책이 막 신앙에 입문하려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자]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한 교리서와 같은 책이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깨우치며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와 같은 우리에게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온 인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교육자, 1,83,3).

3) [양탄자]: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다룬 글들을 모아 만든 이 책은 마치 형형색색 여러 색깔의 실들이 짜여져 만들어지는 양탄자처럼 만들어졌다하여 붙여진 이름을 갖고 있다. 이 책은 당시까지 씌어진 그리스도교 저술 중 가장 긴 책이다. 일정한 순서없이 철학과 계시의 관계, 신앙과 인간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혼인, 순교와 완덕, 하느님의 지식, 철학과 인간적 지혜 그리고 계시, 그 밖의 여러 주제들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